

유아의 식생활 환경과 사회적 능력간의 관련성 분석

김 정 현*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이 명 희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이 성 희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기의 식생활 문제는 성장기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파급되어 신체 발달은 물론 정서·행동 발달의 지체 현상을 초래하는데, 이는 치명적인 성장 장애를 야기 시켜 기질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친 사회적 행동의 일탈과 연계된다. 한편, 유아에게 있어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로서,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관여하는 복합적 조직에서 사회화를 경험하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사회에 적응하고 직·간접적으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유아의 식생활 환경 변인이 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을 결정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요인으로, 이들이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하에 진행되었다. 즉, 가정이라는 한정된 환경에서 유아 교육 기관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는 5~6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식생활 환경으로 유아와 유아 가정의 일반 사항, 유아의 건강요인, 어머니의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과 식생활 행동 등을 분석하였으며, 식생활 환경 변인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식생활 가치관은 영양을 우선시하는 것에 두고 있었으며, 식생활 행동은 보통의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식생활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아버지의 직업과 어머니 자신의 취업 유무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어머니의 식생활 가치관이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었다($p < 0.05$). 유아의 식생활 행동은 어머니가 평가한 결과보다는 교사가 평가한 결과에서 유의적인 변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유아의 건강 상태는 교사가 측정한 유아의 식생활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p < 0.05$).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수준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활동 상태와 수면 상태가 유의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p < 0.05$). 식생활 환경 변인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성 분석을 한 결과, 교사가 측정한 유아의 식생활 행동이 양호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유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p < 0.05$).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유아일지라도 어머니가 평가한 유아의 식생활 행동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식생활 행동이 양호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p < 0.05$).

본 연구 결과, 식생활 환경 변인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직·간접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아의 영양 관리는 유아의 성장, 발달 및 행동과 학습 행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므로, 유아의 식생활과 행동 발달에만 국한되었던 연구 자료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라는 새로운 측면의 다각적인 연구 접근을 통하여 유아의 식생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